

동서고속철 총사업비 2조2,840억 확정

〈춘천~속초〉

속보=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총 사업비(본보 지난 22일자 2면 보도)가 2조2,840억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1987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언급된 이후 33년 만에 숙원사업이 법적 지위를 갖고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는 23일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고속철도 고시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며 상

기획재정부 심의위 발표... 상반기중 설계·입찰 착수 백담역 지방비 투입·춘천 6.5km 전구간 지하화 결정

반기 중 설계와 입찰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던키 방식)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원도는 동서고속철도 6개 역사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과 철도연계 교통체계 구축대책 기본계획 수립에도 동시 착수한다.

지상·지하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춘천역 6.5km 구간은 전 구간 지하화로 결정됐다. 강원도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설치를 공식화한 백담역은 총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도비·군비 부담 비율

등을 별도로 조율한다.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의 사업 공식화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동서고속철도는 춘천~속초 구간 93.737km를 연결하며 기존 경춘선과 연결돼 서울~속초를 최고 시속 250km로 주파할 수 있다.

당초에는 2025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년6개월 가량 지연되며 2026년으로 재조정됐다.

최기영기자 answer07@

동서고속철 사업비 확정 '30년 숙원' 내년 첫삽

<춘천~속초>

총 사업비 2조2840억원 규모
백담역사 신설·춘천구간 지하화
2026년 개통 목표로 내년 착공
속초 역사위치 설계단계 재논의

속보=영북지역 최대 숙원현안인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본지 1월 17일자 1면 등) 총사업비가 2조 284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 2월 중 기본계획고시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착공, 2026년 완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동서고속철 총사업비를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책정된 기존 사업비(2조 631억원)보다 10.7%(2209억원) 증액된 2조 284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지역차원의 요구가 집중된 백담역사는 역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백담역사 신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비로 추진된다. 역사는 신설비용 66억원과 보상비 4억2600만원 등 총 70억원이 투입된다. 백담역사는 당초 신호장(열차의 교행과 대피만을 위해 설치되는 철도역)으로만 계획됐으나 도와 인제군이 건의한 인제·설악권 필수교통망 역할을 수용, 신설로 확정됐다.

춘천강북권의 지하화 축소계획은 철회, 당초안대로 춘천역~국군춘천병원(6.5km)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

다. 이 구간은 일부(약 2.3km) 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지상 건설로 인한 민원 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서고속철 사업은 1987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등장한 이후 30년을 끌어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야 국가재정사업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업 확정 이후 번번이 환경문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협회는 2년을 끌어오다 지난해 4월 미시령터널 하부통과를 전제로 완료했다. 또 다시 반년 넘게 후속조치 없이 표류한 동서철도는 KDI 설계적정성 검토가 지연, 1월말에야 사업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020~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춘천지하화와 미시령터널 하부통과 일부 구간은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로 2021년 착공된다. 개통 목표는 2026년이다.

동서고속철도는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를 잇는 93.74km 단선노선이다. 각 역사 위치는 정부안대로 춘천은 현행 춘천역, 화전은 간동면, 양구는 하리, 인제는 원통과 백담사 인근이다. 속초는 노학동 일원이지만 역사 위치를 놓고 지역 내 논란이 불거져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재논의된다.

박지은 pje@kado.net